



물류혁신을 위한 수송포장의 역할

The Role of Transport packaging for Logistics Innovation

(사)한국공업포장협회(이하 협회)는 2009년에 제1회 물류혁신을 위한 수송포장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2014년 5월 제2회 세미나를 재개하며 연 2회씩 봄, 가을에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일 3국 수송포장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포장업계 및 물류업계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장래에 세미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에 대한 협회의 계획을 피력하고자 한다.

포장 클레임 방지책 모색

협회 구성원인 회원사들의 주 업종이 수출포장이므로 협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회원사들의 포장 클레임에 대한 대응업무이다. 바로 클레임의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이다. 본인은 협회의 클레임대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 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포장 미비로 인한 클레임보다는 부적절한 화물 취급으로 포장화물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물류과정에서 종사자들이 포장 화물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해 적절하게 포장화물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포장업자와 물류업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해 물류조건에 적절한 포장을 하고, 물류업자는 포장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 수송을 모색한다면 포장화물의 클레임 발생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전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김형빈

(사)한국공업포장협회 부설
수송포장기술연구소 소장

이를 위해서는 포장업자와 물류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포장 및 물류 기술에 대한 정보, 급변하는 새로운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송포장 적정설계 및 포장화물 안전취급 지침서 개발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두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하나는 물류혁신을 위한 수송포장 세미나였고, 다른 하나는 한·중·일 3국 수송포장가이드라인의 개발이었다.

물류혁신을 위한 수송포장 세미나

먼저 물류혁신을 위한 수송포장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세미나는 매회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현장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7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각각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회 세미나 :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수송포장의 동향, 수송화물 사고 사례, 합리적인 포장비 산출 방법

제2회 세미나 : 플랜트 수출포장 품질 향상 및 포장비 산출 합리화, 수송포장 품질 향상

제3회 세미나 : 수출품 포장화물의 손실 최소화 및 대응 방안 수립

제4회 세미나 : 수출품 포장화물 손상과 손실 최소화 솔루션

제5회 세미나 : 친환경 물류솔루션으로서의 수송포장 용기 재료

제6회 세미나 : 컨테이너 수송환경 및 화물 안전 솔루션

제7회 세미나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류와 패키징 및 수출 구조의 변화

세미나에는 포장업계, 물류업계, 수출기업, 연구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6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총 32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다양한 주제를 발표했다. 또한 해외 전문가 5명도 강연자로 참여하여 훌륭한 내용을 발표해 주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물류업계 및 포장업계가 상호 교류하여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협회 주요사업의 하나이다.

지금까지는 상호 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물류의 시작은 포장이라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 상식이 현장에서는 별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특히 토털 물류비의 절감에는 포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포장 개선이 필수적이다. 반대로 물류과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포장에 적절하게 적용한다면 포장의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 협회는 앞으로도 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2017년부터는 협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공업포장관리사'를 민간자격으로 등록하고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공업포장관리사 인증강좌를 개설하게 되어 부득이 연 1회 개최할 예정이다. 개최 횟수



는 줄지만 그 내용은 급변하는 물류 환경 변화 및 포장 기술 발전에 따른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의 전문가들, 특히 한·중·일 3국 전문가들의 참여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중·일 3국 수송포장가이드라인 제정

다음으로 한·중·일 3국 수송포장가이드라인 제정사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동 협회의 제안으로 한·중·일 관련 단체(한국 : (사)한국공업포장협회, 중국 : 중국포장연합회, 일본 : 일본곤포조합연합회)가 3국 포장 및 물류 전문가 14명으로 3국 전문위원회(위원장 : 김형빈)를 구성해 2010년 8월 동경회의를 시작으로 2013년

11월 중국 심천회의까지 9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2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완성했다.

그 내용은 ▲PART A : 물류과정에서의 리스크, ▲PART B : 패키징, ▲PART C : 포장 부재료 및 보조재료, ▲PART C : 화물의 적재와 고박, 마킹, 출하서류 및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포장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약품의 1차 포장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컨테이너, 더니지, 지지재, 완충 그리고 수송 중에 소비자 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결합 등에 대한 정부는 포함하고 있다.

이 수송포장가이드라인은 수송포장 화물의 손실 방지 및 예방 지침서로써 포장업체 및



▲ (사)한국공업포장협회는 2009년부터 연 2회 물류혁신을 위한 수송포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수송업계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포장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류 과정에서의 각종 스트레스를 분석해 포장 표준, 설계, 작업에 적용하고 포장의 기능을 운송업계가 이해하도록 그 내용을 기술하여 '안전 수송에 적합한 포장' 과 함께 '포장 기능을 고려한 안전 수송'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적절히 적용하여 안전 수송의 목적을 이룩하는데 있다.

또한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포장을 고려한 포장기법, 자재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포장업계와 물류업계가 협업 체제를 갖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위한 포장이 가능해져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화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무적으로 포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심사인이 사실 관계를 정밀 조사하여 일반적인 유통관념에 따라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심사인은 현지인이므로 당연히 현지 측에 유리한 판정을 하기 쉽다.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포장설계의 타당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유통과정의 환경을 철저히 조사해 두어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포장화물 손실에 대비한 보험제도가 없어 중소 포장업체들의 안정적

경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보험제도의 도입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 보험업계와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 화물 손실 최소화 · 물류비 절감 실현

한 · 중 · 일 3국 수송포장가이드라인은 2014년 12월에 'KS T 1204 수송포장가이드라인 통칙' 으로 KS 표준을 제정, 고지되었으며 국제표준화를 위해 NP제안을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포장업계와 물류업계의 정보 공유의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포장 품질의 개선 및 안전 수송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포장화물의 손실 최소화과 나아가 물류비의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한 가지 바램은 수송포장가이드라인으로 수송포장인증제도를 도입해 수출자, 포장업자 및 물류기업들이 양질의 포장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물류 목표를 달성하여 수출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물류비를 절감하여 수출품의 국제 신인도 증대에 절대적으로 이바지 하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이상과 같이 동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업계와 포장업계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화물 손실 최소화 및 물류비 절감 목표 달성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세한 중소 포장업계의 경영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